



07-32 (통권 159호)  
2007.8.10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미 FRB, 인플레이션 우려로 정책금리 동결
- 금통위, 콜금리 목표 5%로 상향 조정

## 경영 노트

- P&G의 사회공헌 비즈니스

## 사회 트렌드

- 고액권 인물 후보 10명 압축
- 110㎡(33.3평) 아파트 마련에 평균 10.5년

## 저널 브리프

- 미국발 세계 증시 혼돈 가속

## 洗心錄

- 진정한 믿음

## □ 미 FRB, 인플레이션 우려로 정책금리 동결

- 미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7일(현지시각)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연 5.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함
  -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2분기 경제성장률 3.4%)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금리동결의 배경이 되고 있음
  -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로 가계 및 기업 부문에 대한 신용경색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연방기금금리의 인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음
- 하지만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제거되지 않고 민간 부문의 신용경색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 중에는 소폭이나마 금리 인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 □ 금통위, 콜금리 목표 5%로 상향 조정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9일 콜금리 목표 수준을 기존 4.75%에서 0.25%p 상향 조정하여 5%로 인상하였음
  -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 7월 콜금리 목표 인상(4.50→4.75%)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분석됨
- 콜금리 목표 인상으로 시중 금리의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주택담보대출 부실 영향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대한 대비가 필요

□ P&G의 사회공헌 비즈니스\*

- (개요) 세계적 생활용품업체인 P&G는 사회적 책임 수행과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사회공헌 비즈니스의 성공적 기업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 월드 비즈니스紙는 최근호에서, P&G의 제3세계 식수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 환경과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사례로 소개함
  - P&G는 10년간 투자해온 식수정화제사업이 수익성에서 어려움을 겪자, 제3세계의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함
- (내용) P&G는 분말형 필터인 퓨어(PUR)가 상업적 측면에서 안정적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자, 사회적 책임(CSR)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성공을 거둠
  - 우선 제품의 효과적 배포를 위해서 국제 인구서비스, 영국 자선기구, 미국 국제개발기구 등의 인도주의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음
  - 2004년 말 인도네시아를 휩쓴 쓰나미 참사 현장에 구호단체들이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해 퓨어를 구매하면서, P&G의 사회공헌 비즈니스가 효과를 보기 시작함
  - 기존의 상업적 접근으로 300만 개에도 못 미쳤던 판매량이, 쓰나미 참사 이후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 5,700만 개로 늘어남

< P&G의 퓨어(PUR)사업 연혁 >

연도	내용
1991	중앙아메리카 대규모 콜레라 발생 : 식수정화제품 개발 착수
1995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공동 연구개발
2000	분말형 제품 PUR 출시 (봉지당 10센트)
2002	낮은 수익으로 추가 투자 불가
2003	PUR사업을 사회책임활동 부서로 옮기고 사회책임사업 시작
2004	비영리단체들과 협력
2005	국제인구서비스(PSI)와 함께 사회적 마케팅
2006	기업 차원의 활발한 모금·기부 활동

- (시사점) 사회공헌 비즈니스를 통해 인도주의적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구축이 장기적으로 수익 창출로 연결되며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됨을 시사
  - 한편으로 사회공헌 비즈니스는 임직원에게도 기업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여 충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됨

\* 이 글은 매일경제(2007.7.24)에 게재된 기사를 요약, 편집한 내용임

□ 고액권 인물 후보 10명 압축

- 오는 2009년 발행 예정인 5만원권과 10만원권 고액권 지폐의 초상 인물 후보로 김구, 신사임당 등 10명이 선정됨
  - 한은은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화폐도안자문위원회가 1차로 초상 후보 20명을 추천한 뒤 지난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까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사를 거쳐 후보군을 10명으로 압축
- 하지만 한국은행이 여론 검증에 들어가자마자 네티즌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최종 후보 선정까지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음
  - 한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광개토대왕이 빠진 데 대한 비난성 글이나 단군, 안중근, 김만덕(조선시대 여성 거상), 주몽 등을 추천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와 한은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음
  - 최악의 경우 고액권 인물 선정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 대립으로 귀결돼 국민 분열의 양상을 떨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 10인 중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은 김구 선생인 것으로 나타남
  - CBS(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김구(36.1%), 신사임당(19.2%), 유관순(11.3%)이 1~3위를 차지
  - 다음으로는 정약용(4위, 9.7%), 장보고(8.1%), 장영실(6.0%), 안창호(5.0%), 주시경(3.7%), 한용운(0.9%), 김정희(0.2%)의 순으로 조사됨

□ 110㎡(33.3평) 아파트 마련에 평균 10.5년

- 110㎡짜리 아파트 구입에 걸리는 기간은 전국 평균 10.5년이며, 이 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서울(17.8년)로 나타남(영산대 부동산 연구소 조사)
  - 지역내 평균 급여와 지역내 평균 아파트 가격을 계산,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한 것으로서, 급여를 모두 아파트 사는 데 쓴다고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간은 더 걸린다고 할 수 있음
  -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11.6년), 대구(7.7년), 인천(7.7년), 부산(7.2년), 대전(6.8년)의 순이었고, 전남(3.0년)은 가장 짧은 지역으로 나타남

□ 미국발 세계 증시 혼돈 가속\*

- (현황)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의 파장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신용 경색 조짐으로 불안에 떨고 있음
  - 서브프라임 위기로 시작된 세계 증시 조정으로 최근 전 세계 증시에서 2조 1,000억 달러가 증발했지만 앞으로도 추가 손실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여 신용경색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은 모기지 회사 파산, 헤지펀드 청산, 투자은행 및 보험사 손실 확대 등 일부 금융 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지역적으로도 미국 이외의 국가들로까지 확산됨
  
- (세계 증시 전망) 현 상황을 단기 조정을 거쳐 재상승 기조에 들어설 것으로 보는 낙관론과 신용경색 조짐은 결국 유동성 고갈을 가져와 글로벌 증시가 상당 기간 조정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상조
  - 낙관론 : 사모 펀드로 대표되는 금융 부문의 유동성 공급은 줄어들더라도 글로벌 경제 호황 지속, 미국 기업들의 탄탄한 기업실적 등에 의한 기업들의 생산적인 투자로 유동성 고갈을 방지할 수 있음
  - 비관론 : 미국 주택금융 시장의 버블 붕괴로 모기지 부실이 심화되고, 레버리지를 통한 자금조달로 M&A를 활발하게 추진한 사모펀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 불가피
  
- (시사점)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파장이 세계 증시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 악화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및 신용경색은 투자자의 위협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금융위기 방지 측면에서 볼 때 세계 경제 및 국제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임

\* 이 글은 『한경BUSINESS』 (2007.8.13)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 진정한 믿음

信信信也, 疑疑亦信也(신신신야 의의역신야). 순자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운 것을 의심하는 것도 역시 인간의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엇이든 의심해 버리면 믿어야 할 것을 의심하게 되므로 인생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되고, 무엇이든 믿으면 속기 쉽고 실패를 경험하기 쉽게 되므로 의심할 것은 의심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뜻이다.

기업 또는 조직 발전의 기초는 믿어야 되는 부하 또는 동료, 상사를 믿는 데서 비롯된다. 직원들이 서로 신뢰감을 갖고 일을 처리하게 된다면 일의 스피드가 생기고 책임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시작된 종신고용제의 가장 큰 장점은 직원들에게 신뢰감을 준 것이다. 또한 종업원, 고객을 우선으로 여기는 서번트 리더십의 창시자인 로버트 그린리프(Robert K. Greenleaf)는 리더의 역할은 직원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최근 기업마다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의심해야 할 것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기업들의 도덕성 부족에 대해서 시민 또는 고용자의 입장에 서서 문제점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기업의 활동 영역을 재점검하게 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비환경영학’이라고 하여 학문적 접근으로도 기업 경영에 대한 비판이 시도되고 있다.

기업의 상사 또는 경영자가 믿어야 할 것을 믿고 의심해야 할 것을 의심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조직의 성장은 물론 세기를 넘어선 기업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커다란 행복을 기다리는 동안  
작은 행복을 놓쳐버리고 만다.**

펠 벅(1892~1973) : 미국의 여류 작가